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16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 당 자 • 치매관리팀장 조명희 ☎440-2981 • 담당자 윤지숙 ☎440-298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치매관리사업 발전방향 모색

- 2021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개최, 성과보고 및 유공자 표창 등 -
 -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는 12월 16일 오후 2시30분, ‘2021년 인천광역시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 사업운영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치매관리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발전대회는 치매관리사업 공로 기관 및 종사자 표창을 비롯해 치매관리사업 경과보고, 우수 프로그램 사례발표 및 미니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한 △부평구 치매안심센터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최혜경 미추홀구 지방간호주사보 △김영임 동구 지방간호주사 △윤보원 서구 지방간호주사보 △황창하 인천시 시설주사 등 2개 기관과 개인 4명이 각각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치매극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서

구치매안심센터는 ‘뇌청춘 노후든든’ 플랫폼을 활용한 민·관 공조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미니 심포지엄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치매환자를 위한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방안(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현황 및 계획(서윤정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을 공유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커졌지만 종사자분들의 노력 덕분에 인천시가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로 점차 완성돼가고 있다”면서 “한곳에 모일 수는 없지만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 인천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22년에도 인간존중돌봄을 기본으로 하는 휴머니튜드의 본격 도입과 더불어 내실 있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30)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